

주간기도정보

2024. 5. 21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전 세대 아우르는 신앙교육, 노년·크리스천가정이 키포인트

젊은세대 신앙적으로 일깨우기 위해서는 부모·조부모세대 먼저 일으켜야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 크리스천이 타 연령대에 비해 가정·신앙·여가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가 10% 포인트 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크리스천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신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가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다음세대를 타깃으로 한 신앙교육 등 교회사역의 출발점이 다음세대에서 깊은 신앙을 지닌 부모·조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정사역단체 ‘가정의 힘’(더펠로우십(재)한국IFC) 교육분과위원장 단혜향은 공익신탁 ‘내일이 더 강한 교회’(실행위원장 우창록 변호사, 실행위원 김병삼 이규현

이영훈 목사)와 함께 14일 제주 M리조트에서 ‘한국형 생애주기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가정의 힘’은 지난달 전국 개신교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각 세대가 지닌 신앙과 생활의 실제적 필요와 관심사를 조사했다. 청년(만19-34세), 장년(만35-49세), 중년(만50-64세), 노년(65세 이상) 등 4개 연령층(그룹별 500명)으로 구분한 조사에서 노년층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90.8%였다.

청·장·중년층(77.4-83.8%)보다 평균 10%포인트 높았다. 노년층은 특히 교회 내 정기적 봉사(42.4%)나 매일 기도 생활(55.9%), 십일조 생활(75.1%) 등 신앙생활의 세부 지표에서도 타 연령대보다 가장 높은 헌신도를 보였다. 한국교회 성장·부흥기를 경험한 ‘은혜의 세대’인 노년층의 영성과 지혜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눈길을 끄는 건 노년층 중에서도 신앙이 견고할수록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내가 할 일이 많다고 느낀다’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신앙 1단계(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51.9%인데, 4단계(가장 성숙한 단계)에서는 83.3%였다. 노년 크리스천의 주요 신앙 관심사에서 ‘성령 충만과 영적 성장’이 20.1%로 최다였다. 타 연령대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1순위로 꼽았다. 든든한 신앙의 선배이자 믿음의 전수자 역할이 부각될 만하다.

응답자들은 자신의 신앙생활 만족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가족(45.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목회자(24.6%), 신앙 친구·선후배·멘토(13.8%), 기독교방송·영상콘텐츠(4.7%), 카카오톡 등 SNS(1.5%) 등의 순이었다(1순위 기준). 또 ‘신앙심이 좋은 시절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청·장년층은 부모(57.0%)를, 중·노년층은 목회자(59.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앙 성장이 영상이나 미디어 등 간접적인 수단보다는 가정과 교회 등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동시에 젊은 세대를 신앙적으로 일깨우기 위해선 부모 세대를 먼저 일으켜야 한다는 점을 암시해 주기도 한다.

‘내 연령에 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한 세대별 응답은 목회자들이 참고할 만하다. 성도들의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관심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일례로 청년층은 일·취업, 장년기는 재테크, 중·노년기는 건강을 꼽았다(1순위 기준).

‘가정의 힘’ 생애주기 연구소장인 강현석 목사는 “신앙과 공동체에 무관심한 세대들에게 교회의 역량과 자원을 올인 하기보다 그들의 부모·조부모 세대인 노년을 출발점으로 일깨워 자녀와 손주 세대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등 전략에 역발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갈라디아서 6:8-10)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로마서 1:11-12)

하나님, 한국교회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주를 섬기며 기도와 헌신으로 밑거름이 되어주신 은혜의 세대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입니다. 신앙과 공동체에 무관심하며 믿음의 유산이 희미해져 빼 떨어진 세대 속에서 영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육체를 위함이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선을 행하도록 일깨워 주소서. 믿음의 노년세대가 신앙과 생활의 만족을 넘어 우리 자녀세대가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히 서기 위하여 애통함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믿음 위에 선 가정들을 통해 주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어 한국과 온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영생을 거두는 승리로 인도하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내가 죄악이 많고 불의하나 다시 불쌍히 여기시리라”

북한, 대북제재 헐거워진 틈 타 중국에 신규 노동자 대거 파견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에도 ‘감시·통제’ 강화



북한이 최근 자국 노동자들을 대거 중국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관계가 다소 회복된 데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감시망이 헐거워지자, 북한이 신규 노동자 파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14일 데일리NK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4월 말부터 대규모의 신규 노동 인력을 중국으로 파견하고 있다.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어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최소 1,000-2,000여 명이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식통의 말이다. 북한 신규 노동 인력들은 곧바로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의류 또는 전자부품 공장에서 노동을 시작한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영사관 간부들은 신규 노동자들이 중국으로 파견되기 전인 지난달 초부터 노동자들이 채용될 공장을 시찰하고 다녔다고 한다. 북한 신규 노동자들은 주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을 통해 중국 지린성 투먼(圖們)으로, 또는 함경북도 무산군을 통해 중국 지린성 난핑(南坪)으로 들어오고 있다.

지린성 투먼과 난핑 쪽 북중 접경지역에는 검문·검색이 강화돼 있어 중국인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을 통해서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인력과 물품에 대한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지난달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북 직후 노동 인력 파견이 시작됐다”며 “북중 고위급 협의에서 인적교류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노동자 파견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임기연장 계획에 거부권을 행사해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전문가패널이 해체되자 중국도 새로운 북한 노동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에 종전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코로나 국경봉쇄가 풀린 상황에서도 중국이 승인하지 않아 북한 노동 인력이 입국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최근 북중관계가 회복되고 대북제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중국이 노동자 입국을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통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협력이 깊어지는 가운데 파견 노동자들의 이탈 문제에 관해서도 북러 정보기관이 긴밀히 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러시아 현지에는 그동안 외부 세계와의 연결 창구가 돼왔던 노동자들의 휴대전화 몰수뿐만 아니라 저녁 7시 이후 외출 금지, 외부 접촉과 관련한 상호 감시 및 동향 장악 보고 등의 지시가 내려졌다는 전언이다. 심지어 국가보위성 해외반탐국 외국 파견 대상 교양분과(비상설 조직)는 해외 파견이 결정된 노동자들에게 상영할 동영상 교양자료 내용을 수정해 외부 세력과의 부적절한 접촉과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나섰다고 한다(출처: 데일리NK 종합).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에스겔 28:18)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미가 7:19-20)

하나님, 대북제재 감시망이 헐거워진 틈을 타 노동자들을 중국에 대거 보내며 불의한 무역으로 죄악을 쌓고 있는 두 나라와 노동자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 북한을 꾸짖어 주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위한 세 나라의 외교 협력이 한낱 씌어 없어질 땅의 권력과 부귀를 위함이요 언젠든 또 다른 유익을 위해 서로 간에 적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 불법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무력이 아니면 자국민을 다스릴 수 없는 김정은 정권에게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신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셔서 속히 북한에 자유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지금도 각국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어둡고 암담한 삶 가운데 빛으로 만나주셔서 복음으로 심령이 회복되고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초중고생 절반 “행복하지 않다”…내일 걱정에 밤잠 설치

학년 높아질수록 일상 불균형…소아청소년 16% ‘정신장애 진단받은 적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절반 이상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에 비해 수면시간은 15분 감소하고 공부시간은 28분 증가하는 등 불균형한 하루를 보내는 학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전국 초중고 학생 1만 1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 아동행복지수’에 따르면 과소 수면에 해당하는 학생은 18.8%, 과다 공부에 해당 학생들은 65.1%에 달했다. 특히 고학년일수록 이런 불균형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행복지수는 수면·공부·미디어·운동 4개 생활영역으로 아동의 하루를 분석해 아동 발달 및 권리 관점에서 바람직한 수준으로 여겨지는 ‘권장기준 시간’ 대비 일상 균형 정도를 지수로 산출한 수치다. 분석 결과에서 국내 학생들의 13.1%는 평소 불면을 겪고 있었다.

쉽게 잠들지 못하는 이유로 29.2%가 ‘늦은 시간까지 휴대폰 등 미디어 활동을 하느라’라고 답했다. 이어 △소음 등의 환경적 이유 24.4% △해야 할 일이 많아서 17.0% △내일 할 일 등 걱정이 많아서 9.7%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초 등 저학년의 경우 14.8%, 초등 고학년 23.5%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내일 걱정 때문에 잠들지 못한다’고 답했다.

초록우산은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소 가족과의 주요 대화주제가 공부이거나 성취 압박이 높을수록 우울·불안, 극단적 선택 생각 등을 더 겪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소아·청소년의 16.1%는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유병률을 유형별로 보면 ‘특정 공포증’이 5.8%로 가장 많았다. 적대적 반항장애 4.1%, 분리불안장애 3.8%, 틱장애 2.4%, 섭식장애 1.7% 순이었다. 현재 유병률만 놓고 보면 적대적 반항장애 2.7%, 틱장애 2.4%, 섭식장애 1.1%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소아·청소년 중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6.6%에 그쳤다. 서비스 이용 방해 요인으로는 ‘아직까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소아와 청소년 각각 60.1%, 60.0%로 가장 많았다.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것 같아서’라는 답변도 소아 43.4%, 청소년 52.8%로 그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반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출처: 뉴스1, 국민일보 종합).

여호와야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야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야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민수기 6:24-26)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요한1서 4:9-10)

하나님, 어린 영혼들이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며 미래의 염려와 현실의 부담에 짓눌려 살아가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은혜와 평강을 베풀기 원하시는 주님의 본심을 알게 하소서. 세상으로부터 주입된 가치관과 교육에 끌려 다니는 이들에게 그 끝의 멸망과 비참함을 영생으로 바꾸신 십자가 복음을 계시하사 삶의 소망과 목적을 되찾게 하옵소서. 교회와 부모세대가 마음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근본적인 치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자녀들과 함께 복음 앞에 서며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다음세대들을 통해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이 세대가 참된 생명을 발견하고 주께 나오게 하옵소서.

다음은 ‘대륙별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